

팔레스타인 국가와 티레 와 시돈 의 운명

에스겔 25:1-28:26

© 2024 레슬리 앨런과 테드 힐데브란트

에스겔서를 가르칠 때 레슬리 알렌 박사(Dr. Leslie Allen)입니다. 이것은 세션 13, 4부, 팔레스타인 국가와 두로 와 시돈의 운명, 에스겔 25:1-28:26입니다.

이제 우리는 에스겔서 전반부와 후반부 사이의 연결 장이라고 부르는 부분의 전반부에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외국과 거래합니다. 이것은 외국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대선지서와 일부 소선언서에는 외국에 대한 메시지 부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그들은 이스라엘 세계의 국가들에 대한 야훼의 주권을 확증합니다. 각 책에서 그들이 갖고 있는 특별한 목적은 각 경우에 별도로 수집될 필요가 있습니다. 아모스 1장과 2장에는 국제적 폭력을 정죄하고 처벌하는 하나님의 보편적 원칙이 다른 나라의 경우에도 확립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모스의 청중이 아마도 아멘, 아모스를 설교하라고 말했을 것입니다. 아모스는 이 원칙을 북왕국과 그 자체의 내부 폭력에 대항하여 교묘하게 바꿉니다. 예레미야서에서 46장부터 51장에 나오는 외국의 심판 메시지는 하나님의 백성을 위한 긍정적인 미래의 이면으로 사용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에스겔서에 나오는 열국에 대한 메시지의 특별한 의미를 찾아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본문에서 증거를 찾아야 합니다. 이제 25~28장이 우리의 관심사가 될 것입니다. 그들은 팔레스타인 국가들과 페니키아 도시인 티레 와 그 자매 도시인 시돈을 겨냥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추구할 수 있는 한 가지 단서는 연대기입니다. 외국 섹션의 전반부에는 날짜가 하나만 제공됩니다. 26장 1절에 있습니다. 아쉽게도 한 달이 부족합니다.

11년째 그달 1일이라고 되어 있는데 무슨 달인가요? 우리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예루살렘이 멸망한 이후의 시기를 가리키는 것 같습니다. 두로 의 경우 대부분의 국가적 메시지나 일련의 메시지는 유다의 운명에 대한 국가의 적대적인 반응의 기초로서 이미 성취된 사실로 반영된 예루살렘의 멸망을 반영하는 비난으로 시작됩니다.

더욱이 28~24장에서는 시돈에 대한 메시지가 유다를 위한 위로의 말로 끝나는 반면, 25~26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웃 나라들의 멸시를 벌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이 자기 땅에 정착할 것을 고대하고 있다. 그들을 위해. 그리고 같은 단어인 경멸은 동사가 아닌 명사의 형태로 25장, 6장, 15장에서 암몬 족속과 블레셋 족속을 가리켜 사용되었지만 새 RSV와 NIV에서는 악의로 표현되었습니다. 더욱이 36-5장에서는 포로들을 위한 긍정적인 메시지의 과정에서 NRSV에서 멸시를, NIV에서 악의를 품은 나라들과 관련하여 동일한 명사가 사용됩니다.

그래서 유다를 향한 멸시나 악의라는 주제가 25-28장 내에서 틀로 기능한다. 그리고 이것은 이 장들이 유대 포로들에게 호의적으로 읽혀지고 그들을 안심시키고 그들의 편을 들도록 의도되었다는 표시입니다. 이는 다른 나라의 빨간 신호등과 같습니다. 여기서는 망명자들이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녹색 신호등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서는 유다의 대적들을 벌하실 것입니다. 전체적으로 이런 뜻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24장의 끝에서 독자들은 에스겔이 대부분의 시간 동안 입을 다물고 있어야 했던 상징적 행동이 완화되면서 상황이 바뀔 것이라는 암시를 받았습니다.

그 힌트는 25-28에서 여기에서 개발되고 있습니다. 25장은 이웃 국가들에 대한 짧은 메시지 모음을 제공합니다. 2-5, 6, 7절에서 암몬에 대한 두 메시지, 8-11절에서 모압에 대한 메시지, 12-14절에서 에돔, 15-15절에서 블레셋 사람들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17.

두로 와 시돈은 26-28장에 등장합니다. 이제 역사적으로 잠시 뒤로 물러나 보겠습니다. 예레미야서 27장 3절에는 흥미로운 구절이 있습니다. 이 구절은 기원전 594년경으로 추정됩니다. 이 초기 시기에 회의가 있었습니다.

여러 나라, 유다와 그 이웃 나라들의 모임이 있었습니다. 회의는 시드기야 왕의 주관으로 예루살렘에서 열렸습니다. 예레미야 27장 3절에 언급된 바와 같이 에돔 왕, 모압 왕, 암몬 왕, 두로 왕, 시돈 왕이 사절을 보냈습니다.

이것은 매혹적이다. 사실, 그들은 모두 바빌론에 대한 반역을 논의하기 위해 모였습니다. 시드기야의 입장에서 유다는 분명히 주모자였습니다.

그러나 압박이 가해지자 그 주들은 마음을 바꿨습니다. 바벨론의 공격 위협을 받고 그들은 항복하여 바벨론 편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유다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유다는 홀로 남겨졌습니다. 그리고 한때 유다 편에 있던 다른 나라들은 이제 유다의 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이 장들 25장부터 28장까지에서 전제되는 설정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은 포로들의 후원자이시며 현재 유다에 대항하여 바벨론의 편에 섰던 나라들을 반대하시는 분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포로들의 편을 들어 그들을 대적하신다. 에스겔서의 앞부분인 21절 28절에서 587년 이후 메시지의 서문에서 암몬 사람들은 비난과 연관되었습니다.

비난(URSV) 또는 모욕(NIV)은 분명히 타락한 유다를 겨냥한 것임이 분명하다. 그리고 여기 25장 1절부터 5절까지에서 우리는 그 비난이나 모욕이 자세히 설명되어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3절, 당신이 '아하! 내 성소가 더럽혀진 때에, 이스라엘 땅이 황무하게 되었을 때에, 유다 족속이 사로잡혀 갔을 때에 그것을 치렀느니라.

유다에 대한 일련의 비난, 비난, 모욕이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소를 더럽히는 일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흥미롭게도 이것은 24장과의 문학적

연결을 제공합니다. 왜냐하면 21절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성소를 더럽힐 것이기 때문입니다.

글쎄요, 하나님께서 성전을 파괴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과는 별개입니다. 암몬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울부짖는 것은 또 다른 일입니다. 아하!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보세요. 성전이 더럽혀졌습니다. 하지만 이제 시간이 흘러 24장에 나오는 예언이 현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암몬 사람들은 하나님 자신을 자신들의 희생자로 조롱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약하심과 그의 성전이 무너졌다고 울부짖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의 정당성을 입증하실 뿐만 아니라 자신의 백성을 옹호하여 암몬 사람들이 자신이 누구인지 알게 하려고 하셨습니다. 5절 끝에 이르면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우리는 암몬 사람들의 조롱에 대한 보복으로 그들에게 임할 멸망에 대한 인식 공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일이 일어났나요? 사실, 느부갓네살은 기원전 582년에 암몬을 공격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그 공격의 예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암몬에 대한 두 번째 메시지는 6절과 7절에 나옵니다. 6절에서는 유다의 멸망에 대해 악의적인 기쁨을 나타냄으로써 유다의 하나님에 대한 도발을 강화합니다. 하나님은 다시 그의 백성의 편을 들 것이다. 8절부터 11절까지의 모압에 대한 메시지는 유다와 야훼가 어떤 특별한 관계가 있다는 사실을 부인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모압이 이르기를 유다 족속은 다른 모든 나라와 같으니라 그들은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특별한 방법으로 보호를 받지 않습니다.

그들은 바빌로니아 사람들에게 패배했습니다. 그들은 우리 중 나머지 사람들도 그랬을 수 있었던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그분의 특별한 백성인 유다 사이의 특별한 관계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유다와 유다의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입니다. 암몬과 마찬가지로 느부갓네살도 BC 582년에 모압을 공격했습니다. 그리고 이 메시지는 모압에 대한 하나님의 형벌로서 그 공격을 미리 내다보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들의 동족에 대한 적개심 때문에 12절부터 14절까지 에돔에 대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12절을 보겠습니다.

에돔이 유다 족속에게 보복하여 그들에게 보복하여 큰 죄를 범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점, 점, 점. 그래서 여기 에 비난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등장하는 것은 단지 태도만이 아닙니다. 유다에게 쌓인 것은 단지 모욕적인 말만이 아닙니다. 그것은 활동입니다.

에돔은 실제로 유다를 패배시키는 데 있어서 바벨론 편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587년 예루살렘의 멸망에 에돔이 개인적으로 관여한 것으로 지목된 구약성서의 구절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시편 137편과 7절은 바벨론의 역할을 동시에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에돔을 말하는 것입니다.

시편 137편 7절. 여호와여 예루살렘이 함락되던 날에 에돔 족속을 향하여 그들이 이르기를 헐라, 헐어, 그 기초까지 헐어 버리라 하였음을 기억하소서. 글썄, 이것은 단지 말일 뿐이지만 분명히 그들은 예루살렘을 공격하는 바빌로니아 사람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소선지서 중 하나인 오바댜의 활동이 관련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오바댜 11절부터 14절까지에서 그 사실을 발견합니다. 에돔이 예루살렘을 공격하면서 적극적으로 행한 일의 목록이 있습니다. 너 에돔이 물러섰던 날, 낫선 사람들이 그의 재물을 약탈하고 이방인들이 그의 성문에 들어가서 예루살렘을 위하여 제비를 뽑던 날에 너도 그들 중 하나와 같았느니라. 동생을 칭찬하지 말았어야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을 인하여 기뻐하지 말았어야 했습니다. 내 백성이 환난을 당하던 날에 너는 내 백성의 성문으로 들어가지 말았어야 하였느니라. 그 재앙의 날에 너는 그의 물건을 약탈하지 말았어야 하였느니라.

그의 도망자를 차단하기 위해 건널목에 서 있어서는 안됩니다. 환난 날에 그의 생존자를 넘겨주지 말았어야 하였느니라. 그래서 에돔은 예루살렘이 함락되자 바벨론을 돕기 위해 군대를 파견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약탈에 가담했습니다. 그 사이에 에돔 국경에는 파수꾼들이 경비를 서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유대 난민들이 건너가려고 했을 때, 그들은 제지당하고 체포되어 바벨론 당국에 넘겨졌습니다.

그래서 오바다서에서 우리는 예루살렘에 대한 에돔의 활동에 대한 일종의 논평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복수에 대한 이야기도 있습니다. 복수하는 행동이죠. 그리고 25-14장에서는 내가 에돔에게 원수를 갚으리라고 말합니다.

그리하면 그들이 나의 보복함을 알리라 주 여호와와 말씀이니라 그래서 그 복수는 갚아질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복수라는 단어를 좋아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요한계시록에는 신약성경과 평행을 이루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6장과 10절에는 하나님께 부르짖는 죽은 기독교 순교자들의 영혼이 있습니다. 그들이 큰 소리로 부르짖되 거룩하고 참되신 주 여호와여 주께서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 주시는 날이 어느 때까지리이까 하니 그리고 계시록에서는 계속해서 그 기도가 응답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19장 2절에는 찬송가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그리스도인들을 순교한 종들의 피를 그 여자와 바벨론과 로마에서 갚으셨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한 가지는 성경에서 하나님의 복수는 보복적인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범죄에 적합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겪은 잘못을 처벌하는 정의의 수단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여기 에스겔 25장에 있고 요한계시록에도 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15절부터 17절까지의 메시지의 대상입니다. 요엘 3장 4절과 6절에서 우리는 그들을 구체적으로 보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블레셋 사람들을 예루살렘 멸망에 연루된 것으로 지목합니다.

두로 와 시돈 사람들과 함께 예루살렘 성전을 약탈하고 있었습니다 . 그리고 노예 추적에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을 이용하고, 전쟁 포로를 잡아 그리스에 팔아먹는 일이 실제로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도 보복이 약속됩니다.

이 장을 주의 깊게 읽으면 이 장에 강한 감정과 열정이 담긴 언어가 담겨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언어는 이웃의 손에 수치스러운 고통을 당하는 유배자들의 감정을 반영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그들의 신은 그들을 변호하기 위해 뛰어 들고 그들과 자신 모두를 변호하겠다고 약속합니다.

26장부터 28장은 두로 에 대한 메시지, 두로 에 대한 일련의 메시지 , 그리고 시돈에 대한 메시지로 구성됩니다. 그리고 25~28장은 28~24장의 요약문으로 마무리됩니다. 이제 그것들을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28장과 24장에는 일반적인 진술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집은 자기들을 멸시했던 모든 이웃 가운데서 찌르는 가시나 찌르는 가시를 더 이상 발견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웃 사람들은 내가 주 하느님임을 알게 될 것이다. 그래서 다시 한번, 페니키아 도시 두로 와 시돈 에 대한 이 예언의 끝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편에서 그들을 대적하실 것이라는 해석의 기초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25-26장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 행하실 선한 일들에 대한 긍정적인 요약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것들은 그들이 예루살렘과 유다에 행한 그릇된 일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이 경우에는 두로 와 시돈에게 보이실 적개심과 대조됩니다. 두로는 페니키아인들의 수도였으며 지중해 전역의 무역의 중심지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실제로 해안에서 약 0.5마일 떨어진 섬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본토 교외, 본토 교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실 여기 5절에서는 두로가 바다 가운데 있는 것으로 언급되고, 6절에서는 들판에 있는 그 딸 성읍들을 언급합니다.

여기에 언급된 유다에 대한 범죄가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사실은 예루살렘을 상대로 한 것입니다. 26장 2절에서 두로가 예루살렘에 대하여 이르기를 아하라 하였으니 만민의 문이 깨졌도다 . 그것은 나에게 열려 있습니다.

낭비되었으니 이제 보충해 주겠다. 여기에는 정치적인 언급이 있습니다. 도시의 문은 정치가들이 모여 도시와 주변 지역의 정책을 결정하는 곳이었습니니다.

그리고 여기서의 생각은 예루살렘이 팔레스타인과 페니키아 국가의 주모자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이 함락되었기 때문에 그 역할을 잃게 될 것이며, 티레가 그 공백을 메울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것은 전체 지역의 정치적 지도자가 될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그들이 유다와 예루살렘을 향하여 울부짖는 방식입니다. 3-6절에 나오는 두로 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는 야훼가 유다의 편을 드는 유다의 새로운 동맹자임을 암시적으로 묘사합니다.

두로에 대한 메시지뿐만 아니라 두로 와 시돈에 대한 다른 메시지도 야훼가 자신의 백성을 보호하기 위해 뛰어오르고 있다는 동일한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첫 번째 메시지인 1절부터 6절까지는 두로 의 멸망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 두로가 열국의 약탈을 당하고 학살이 일어나는 것을 말합니다 .

그리하여 그들은 내가 여호와인 줄 알게 될 것이다. 그러나 6절부터 7절까지는 하나님의 일인 멸망의 일을 식별하는 역할을 하는 일종의 동반 메시지가 있습니다. 나는 당신을 반대합니다.

내가 많은 나라를 너를 치러 버릴 것이다. 이제 6절과 7절에서는... 예, 이제 느부갓네살과 여러 부대로 구성된 그의 제국 군대에 대한 모호한 언급을 확인합니다. 그리고 두로 의 멸망은 여호와와 의 능력을 입증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사실, 네, 첫 번째 메시지는 1부터 6까지였죠? 그리고 7장부터 14장까지는 느부갓네살이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그의 국제적인 군대에 관한 상세하고 명확하고 상세한 증거를 제공합니다. 그리고 15절부터 18절까지의 세 번째

메시지는 두로의 종말을 다른 각도에서 묘사합니다. 장례 애도에 참여할 유다의 해양 파트너들의 인식에서.

그리고 물론 이 장례 애도는 티레에 대한 심판의 신탁과 같은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번째 부분은 19장부터 21장까지로, 두로의 멸망이 하나님의 일이 될 것이라는 진리를 명시적으로 드러냅니다. 두로는 물에 빠져 죽어 지하세계로 내려가게 됩니다.

타이어는 살아남지 못할 것입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20절을 보면, 내가 너희를 구덩이에 내려가는 자들과 함께 옛적 백성들에게 누르고, 너희를 아래 세상에 살게 하리라. 이것은 사람들이 죽으면 가는 지하세계에 대한 일련의 언급 중 첫 번째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우리는 지하 세계에 대한 언급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찾아보세요. 지하세계는 죽음의 거처이다.

이 내용은 지금부터 이 장 전체에 걸쳐 반복될 것입니다. 그래서 26장은 25장과 마찬가지로 바벨론에 투옥되어 고통받고 있는 포로들에게 위로의 목회적 메시지로 고안되었습니다. 그리고 두로가 상업으로 인해 강력했던 만큼, 하나님의 능력은 더욱 강력했습니다.

그리고 느부갓네살을 통해 하나님은 두로를 정복하실 것이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27장 27장에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저는 방금 상업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여기서 발전된 생각입니다. 그 두로는 해상 무역에 능하여 지중해 전역으로 배를 보냈습니다. 그래서 27장에서는 배로 언급됩니다.

배의 은유. 그리고 두로는 26장에서 실제로 그랬던 것처럼 여전히 언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수사적인 언급입니다.

그리고 물론 늘 그렇듯이, 언급되지 않은 추방자들이 진정한 영웅들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티레의 권세 상실에 대한 극적인 묘사를 갖고 있습니다. 메시지 자체에는 하나님에 대한 언급이 없습니다.

그러나 의미심장하게도 1절과 2절에서는 그것을 하나님 자신의 메시지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나에게 임했습니다. 이제 당신은 필멸의 존재여, 티레 에 대해 애도를 표합니다 .

여기서 매우 자세하게 설명된 두로 의 몰락은 암시 적으로도 사실상 하나님의 일이 될 것입니다 . 그것은 신성하게 정해질 것입니다. 메시지는 배의 인상적인 은유를 사용합니다.

티레에는 상선 함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주 합리적으로 이런 묘사가 있습니다. 두로는 화려하게 지어진 큰 배와 같습니다.

지중해를 항해하는 상선. 그리고 내가 말했듯이, 이것은 해상 무역과 실제로 지중해의 섬에 위치한 두로 에 대한 자연스러운 은유입니다. 그러나 은유는 상황을 변화시킵니다.

그리고 비록 당신이 큰 배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지만 이제 그 비유는 위험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지중해에는 폭풍이 몰아칠 수도 있습니다. 요나서를 읽는 사람들은 폭풍이 일어나 선원과 화물, 배 자체를 파괴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은유는 반전의 문을 열어줍니다. 큰 두로가 무너질 것이라고 어떻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아하! 배의 관점에서 생각해 보면, 그 상상할 수 없는 개념을 받아들이고 진지하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좋은 배 티레(Tyre)는 실제로 가라앉았다고 평판이 좋았던 가라앉지 않는 배인 타이타닉(Titanic)과 같은 고대의 배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은유의 힘이 있습니다. 그것은 현대의 개념을 뒤집을 수 있고 실현될 가능성이 있는 반대되는 아이디어를 수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메시지가 장례식 애도의 형태를 취한다는 점은 의미가 있습니다.

두로를 위하여 애곡하라 . 그리고 그것은 죽은 사람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사무엘하 1장에서 우리는 죽은 사울과 요나단에 대한 다윗의 애도에 관해 앞서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죽은 왕과 왕세자의 덕을 기리는 부분과 그로 인한 죽음과 그것이 국가에 의미하는 손실을 애도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장례식 애도에는 일반적으로 당시와 현재의 대조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패턴이 여기서 따르고 있습니다. 선지자들은 때때로 장례 애도를 놀라운 심판의 신탁으로 사용하여 다가올 재앙을 예언하고 마치 이미 일어난 것처럼 이야기하기를 좋아합니다.

아모스서에는 이에 대한 흥미로운 설명이 있습니다. 5장 1절부터 3절.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애곡하여 너희에게 전하는 여호와와 말씀들을 들으라. 타락하여 더 이상 일어날 수 없는 처녀 이스라엘이여, 자기 땅에 버림받아 일으켜 세울 사람이 없도다.

이스라엘의 멸망은 과거의 일로 간주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장례 애도의 형식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다음에는 3절에서 그것을 일반적인 예언적 미래로 번역합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천 명이 나가던 성읍에는 백 명이 남고 백 명이 나가던 성읍에는 열 명이 남 으리라 하셨느니라 . 북쪽 왕국의 각 도시에서 온 이들 부대는 말 그대로 전멸될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심판의 신탁에 적용되는 정상적인 미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장례 애도의 형태를 취할 때, 당신은 그것을 과거로 간주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미래의 죽음과 몰락이 확실하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좋은 배 타이어는 우선 긍정적으로 묘사됩니다. 장례식 애도는 생애 동안 이전에 성취한 것을 축하하는 것으로 시작되는 경우가 많다고 말씀드렸습니다. 3b절부터 11절까지에서 우리는 배에 대해 잘 건조되고 장비가 잘 갖춰져 있으며 훌륭한 승무원이 있다고 묘사합니다.

그런 다음 12절부터 25절 전반부까지 이전 시에는 산문의 화물 목록, 즉 두로가 여러 나라를 대신하여 운반한 상품 목록이 추가됩니다. 그리고 그것은 인상적으로 시작하고 끝납니다. 다시스, 멀리 스페인의 지중해 서해안에 있는 다시스입니다. 다시스의 배들이 가는 곳은 그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애도시는 25절 후반부로 이어지며, 그 축하는 비탄의 이야기로 변합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 장례 애도의 두 번째 부분이 있습니다. 전생을 축하할 뿐만 아니라 현재의 죽음을 슬퍼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서 아이러니하게도 무거운 화물은 폭풍우 동안 배의 파괴에 기여합니다.

그리고 화물, 승무원, 배는 모두 가라앉습니다. 두로의 성공의 도구였던 바다는 두로의 묘지이자 황무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관찰자의 입가에는 애도의 목소리가 묘사된다.

그리고 그들은 애도 의식을 거행하고 두로의 끔찍한 상실을 애도합니다. 그들은 재난에 충격을 받고 겁에 질려 있습니다. 티레는 부에서 파멸로 떨어졌습니다.

36절에 있는 이 메시지의 끝, 그 시의 끝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비참한 종말을 맞이하였고 다시는 영영하지 못하리라. 그리고 이것은 사실 이 장들에서 열방에 대한 후렴구로 작용합니다. 우리가 언급하지 않았지만 2621년 말에는 당신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을 것입니다. 아무리 찾아도 당신은 다시는 발견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최종적인 메모가 있습니다. 그리고 2819는 같은 음으로 끝날 것입니다. 당신은 끔찍한 종말을 맞이했고 더 이상 영영히 존재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국가들에 대한 이러한 다양한 신탁들은 모두 이 멸망의 최후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은 사실 그것들이 모두 심판의 메시지이고 모두 특정한 죄와 관련되어 있다는 것을 상기시켜 줍니다. 처음에는 26장에서 죄를 언급했고, 28장에서는 교만, 즉 28장에서 두로 왕의 교만을 갖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27장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비록 27장에는 특별한 비난이 언급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 다음 28장에서는 1절부터 19절까지로 이동합니다. 1절부터 19절까지는 수사적으로 두로 왕에게 전하는 두 가지 심판의 메시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두로 성으로가 아니라 두로 왕에게로 1절부터 10절과 11절부터 19절까지입니다.

그리고 19장의 끝, 그 후렴, 당신은 무서운 종말에 이르렀고 더 이상 영원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 초점, 이 두 메시지가 한 쌍으로 초점을 맞추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그것들을 함께 가져갈 것입니다. 이 첫 번째 메시지는 2절부터 5절까지의 참조와 6절부터 10절의 형벌로 구성된 직설적인 심판의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2절에서 "왜냐하면"으로 시작해서 6절에서 "왜냐하면"으로 시작해서 아주 유익하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것은 비난과 판단 사이의 다리로 이동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심판에 대한 명백한 비난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비난은 무엇이었나요? 2절에서 왕을 책망하는 것은 네 마음이 교만하여 말하기를 나는 신이라 하였음이라. 나는 바다 한가운데 신들의 자리에 앉았느니라. 네가 비록 죽을 운명에 불과하고 신이 아니어도 네 마음을 신의 마음과 비교할지라도.

글쎄요, 이것은 자신감 넘치는 자존심과 자기 중심성에 대한 비난입니다. 이는 마치 왕이 그 자체로 신인 것처럼 초인적인 힘을 주장하는 죄입니다. 그리고 그의 상업 거래는 아마도 이러한 자부심을 장려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3절에 보면 '네가 다니엘보다 지혜롭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 고대 영웅을 다시 언급하게 됩니다. 1414년에 그는 고대의 현명한 왕이었습니다.

두로 왕은 이스라엘의 신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의 자존심은 바벨론 군대에 의해 겸손해질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계속해서 말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실제로 자신에게 초인적인 힘이 없다는 증거로 그들의 손에 죽을 것입니다. 그는 진짜 신의 대리인들로부터 자신의 등장을 얻을 것입니다. 그리고 11절부터 19절까지는 두 번째 심판의 메시지, 즉 이 쌍의 두 번째 메시지를 전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의 비난에서 형벌로 옮겨갑니다. 그리고 우리가 겪으면서 보게 되겠지만, 그 형벌은 16b절에서 18절까지 올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또한 우리가 27장에서 만난 두 가지 복잡한 특징이 있습니다.

먼저 확장된 은유를 사용하고 다음에는 장례 애도의 형태를 사용한다. 실제로 그 메시지는 12절에서 애가로 묘사됩니다. 필멸자가 두로 왕을 두고 애가하며 그에게 이르되, 주 하나님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느니라.

그리고 선지자들의 다른 장례 애가와 마찬가지로 이 애가도 미래에 적용되어 이루어질 심판의 신탁 역할을 합니다. 예측 품질이 있습니다. 그것은 누군가가 죽었다는 슬픔을 표현하기 전에 인생의 공적을 기념하는 장례 애도와 같습니다.

음, 여기에도 성과가 언급되어 있습니다. 당신은 완벽함의 인장이었습니다. 그리고 인장이란 신에 의해 임명된 왕을 지칭하는 용어이다.

그리고 모든 왕은 신의 섭리에 따라 자신의 권력을 빚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신의 섭리적 뜻을 수행한다는 이상적인 관점에서 신의 뜻을 행하고 일종의 인장으로서 신의 인장반지로 군림한다. 지혜가 총만하고 아름다움이 완전합니다.

그리고 은유가 시작됩니다. 두로 의 왕 역시 창조 이야기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세계 최초의 인간으로 여겨지는 두로 의 왕.

그래서 여기에 이런 축하 행사가 있습니다. 그러나 심판의 신탁의 입장에서 보면 이런 모습이 나올 때도 있습니다. 이전 강의에서 저는 이사야 5장에 나오는 이사야의 포도원 노래를 언급했습니다. 이 노래는 하나님께서 그의 포도원을 위해 행하신 모든 선한 일을 말하는 빛나는 용어로 시작됩니다.

유다 나라. 그런데 좋은 포도가 나오지 않고 들포도가 나왔다는 비난이 나오자 뺨을 맞는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그 포도원을 멀하셔야만 했습니다.

따라서 비난에 따른 비난과 처벌 이전에는 실제로 비난을 강화하고 앞으로 있을 처벌을 정당화하는 힘을 갖는 초기 추가 요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가 그렇습니다. 내가 말했듯이, 그것은 창조 이야기이다.

그리고 여러 면에서 창세기 2장과 3장의 패턴을 따릅니다. 그러나 모든 면에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왕은 에덴동산의 첫 사람과 같습니다. 예, 당신은 에덴에 있었습니다.

13절, 하나님의 동산. 그러나 14절에서는 그 동산을 하나님의 거룩한 산이라고도 부릅니다.

그리고 이야기에는 뱀이 등장하지 않고, 여자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현명합니다. 그리고 그는 별거벗은 것이 아니고 값비싼 보석으로 장식된 옷을 입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정원에 머무는 동안 수호자 체루브와 동행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하나님께 죄를 지은 후 결국 그를 산에서 쫓아낸 것도 바로 이 그룹입니다. 그리고 첫 번째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낙원은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여기 에 두로 의 왕에게 적용되는 창조 이야기의 버전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암시적으로 당신이 그렇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비난은 죄악을 골라냅니다. 15절, 네가 창조된 날부터 네 행위에 완전하였더니 마침내 불법이 네게서 발견되었느니라. 그리고 우리는 그 죄악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18절의 은유적 해석을 통해 이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너희 죄악이 많으니 그것이 무엇이었느냐? 글썄요, 당신의 사업이 불의하다는 것입니다. 너희는 너희 성소를 더럽혔다.

그래서 내가 너희 속에서 불을 내어 너희를 사르게 하였느니라. 그래서 거기에는 잘못된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언급이 있습니다. 16절에서는 거래와 관련하여 우리는 그것을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네 무역이 풍부함에도 불구하고 네가 강포로 가득 차서 죄를 지었다. 그러나 이 거래는 18절에서 이어지며, 여러분의 성소를 더럽히고 여러분의 믿음에 충실하지 않음으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여기에 그 변태가 있습니다.

사실 당신은 자신의 영광을 위해 지혜를 타락시켰습니다. 17절 그래서 내가 너를 땅에 던졌느니라. 내가 너를 열왕 앞에 드러내어 그들의 눈을 즐겁게 하였느니라

그래서 심판 이 이루어집니다. 두로 왕은 하나님의 인장반지, 하나님의 인, 다른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권위를 나타내는 도구임에도 불구하고 그 특권을 무책임하게 사용했기 때문에 그 특권을 잃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25장부터 28장까지의 일련의 외국 메시지는 20절부터 23절까지의 시돈에 대한 메시지로 끝납니다.

이 메시지에는 비난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심판의 신탁이지만 형벌로만 구성되어 있습니다. 사실 시돈에 임할 징벌의 예고만 있을 뿐입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다른 메시지와 비교하여 새로운 기능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형벌을 통해 영광을 얻으시겠다는 것입니다. 22절에 그 내용이 있습니다.

오 시돈아, 나는 너를 반대한다. 나는 너희 가운데서 영광을 얻을 것이다. 내가 그 가운데서 심판하고 그 가운데서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면 그들은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러므로 이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시돈의 멸망으로 나타날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거룩함은 비록 시돈에 대해 특별한 비난이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그릇되고 죄악된 것에 대한 심판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범죄에 대해 심판을 행하심으로 자신을 입증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 경우에는 시돈이 선택되었습니다. 그 곳은 두로 에서 북쪽으로 약 25마일 떨어진 본토에 있는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영광을 얻고 거룩함을

나타내는 것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유다의 멸망을 통해 굴욕을 당하셨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전에 에스겔서에서 본 내용이며, 다음 장에서 다시 다루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친히 받으신 굴욕은 시돈을 벌하시는 그분의 활동으로 인해 뒤집어질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암묵적으로 그는 유다를 대신하여 행동할 것이었습니다.

24절은 중요한 구절이다. 이는 이전의 모든 외국 국가를 요약하는 보충적이고 명시적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족속은 자기를 멸시하던 이웃 모든 자 중에서 다시는 찌르는 가시나 찌르는 가시를 발견하지 못할 것이라 내가 여호와 하나님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따라서 이러한 특정 국가에 대한 이러한 신탁의 의미와 그 의미에 대한 해석을 제공하는 요약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25~26은 추가적인 보충이고, 이제는 긍정적인 메시지입니다. 예, 24년에는 더 이상 이 가시로 인해 짜증이 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더 긍정적인 점은 유배가 끝난 뒤 이어질 긍정적인 주제에 대한 언급이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스라엘 족속을 만민 중에서 모으고 열방의 목전에서 그들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리라 그러므로 시돈의 멸망뿐 아니라 유대 유배자들이 자기 나라로 돌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특별한 능력을 드러내는 일이 될 것이며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것에 대한 입증이 될 것입니다.

그들은 내가 그들의 종 야곱에게 준 땅에 정착할 것이다. 그들은 그 안에서 안전하게 살 것이다. 그들은 집을 짓고 포도원을 심을 것이다.

자기들을 멸시하던 그들의 모든 이웃을 내가 심판할 때에 그들은 안전하게 살리라. 그래서, 외국 나라들에 대한 심판의 신탁을 모으는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자체가 관련된 갱신과 회복의 긍정적인 메시지와 함께 모였습니다.

따라서 이 장들은 에스겔의 말을 실제로 듣고 있던 유대 유배자들에게 목회적인 확신을 줍니다. 그리고 저는 신약성서에도 평행선이 있다고 제안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후서 1장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서 바울은 이웃, 즉 비기독교인 이웃에 의해 박해를 받은 일단의 그리스도인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여기서 언급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일련의 구절들, 첫 번째 6절과 7절에서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너희를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 받는 너희에게 안식을 주시리라는 것을 듣습니다. 이것은 데살로니가후서 1장 6절과 7절에서 우리 장들이 말하고 있는 내용의 신약성경 버전입니다. 동시에 그리스도께서는 재림 때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10절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9절에 보면, “ 이 사람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에서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위한 영광은 그의 재림 때에 옵니다.

이것은 또한 교회가 올바른 편에 있다는 확신을 주는 메모이기도 합니다. 두 상황 모두에서 하나님의 백성은 믿음과 소망 가운데 인내하라는 격려를 받았습니다. 결국 모든 것이 잘 될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 우리는 29장부터 32장까지에서 열방에 대한 예언의 후반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에스겔서를 가르칠 때 레슬리 알렌 박사(Dr. Leslie Allen)입니다. 이것은 세션 13, 4부, 팔레스타인 국가와 두로 와 시돈의 운명, 에스겔 25:1-28:26입니다.